

#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분노 표현 교육 연구\*

노초롱 · 김중수\*\*  
(부산대학교)

1. 서론
2.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 분노 표현 교육에 대한 검토
  - 2.1. 연구 필요성 및 문헌 검토
  - 2.2.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에 나타난 감정 표현
3. 연구 방법 및 결과
  - 3.1. 연구 대상 및 방법
  - 3.2. 연구 결과
4.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분노 표현 교육의 방안
  - 4.1. 분노 표현 교육의 내용
  - 4.2. 분노 표현 교육의 실제
5. 결론

## 국문초록

국내의 고등학교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내적, 외적으로 갈등을 겪는다. 이들이 미성숙

\* 이 논문은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2022년 4차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논문임.

\*\* 제1저자 : 노초롱, 교신저자 : 김중수

한 청소년인 점에 주목하여 분노 표현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분노 교육의 개략적인 방향을 제안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검토하고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분노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분노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제대로 된 분노 표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분노 표현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약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분노 표현 관련 어휘, 표현을 가르친 후 분노 감정을 마주하고 성찰하는 교육을 한 후에 타인에게 자신의 분노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분노 감정에 공감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 후에는 자신의 분노 감정 유발 상황과 문제를 언어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태도 교육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고등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발굴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이 청소년기임을 고려하여 한국어 사용 기능 중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분노 표현, 감정 표현, 문제 해결 능력, 공감 교육

## 1. 서론

우리말 교육은 한국인을 위한 자국어 교육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으로 나뉜다. 자국어 교육은 흔히 ‘국어 교육’이라 부르고 한국어 교육은 흔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고 부른다. ‘국어 교육’에서는 한국어를 이용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기능만이 아니라 정서와 감수성, 한국어를 이용한 협력, 탐구 역량 등을 함께 기르게 되어 있다. 한국어가 느린 다문화 학생이나 중도입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초·중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 자국어 교육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중요한 역량들이 결여된 채로 성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문제를 잠재하고 있는 집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K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집단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자기의 의지로 혼자 한국에 와서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혼

자 한국에 입국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고등학생들<sup>1)</sup>로 ‘다문화 가정 학생’이나 ‘중도 입국 학생’과 다른 언어 학습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청소년 시기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인 고등학생들과 학창 시절을 보내며 공부하고 있다. K고등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 중 고등학교 3년간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어 ‘한국어 수업’ 반에서 벗어나 ‘국어 수업’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들 또한 자국어 교육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중요한 역량들이 결여된 채로 성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 분노 표현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분노 표현 교육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분노 표현이란 분노를 느꼈을 때, 자신의 분노 감정을 갈무리하여 언어로 정제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단순 묘사를 포함하며, 분노를 유발한 상황을 멈추게 하거나 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언어 표현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 시스템은 저에게 불리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고쳐지면 좋겠어요”, “저에게 이러시면 저도 기분이 나쁩니다.”와 같은 표현이 있다.

김나현·김희화(2019:187)는 청소년의 발달 과업 중 하나로 부정적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꼽았다. 그런데 본 연구 대상자들인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은 정서 교육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감정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일은 주로 주변인, 특히 가족과 같은 1차 집단으로부터 배우게 되는데 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므로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배울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이다.<sup>2)</sup> 그뿐만

1) 2023년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의 9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214>, 검색일자: 2024.3.10.) 2024년 KBS 뉴스에 따르면, 부산에서 2028년 개교할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5859>, 검색일자: 2024.3.10.) 이와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면 앞으로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증가할 것인데 이를 위해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라 이들은 학교와 같은 2차 집단에서도 감정 표현과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이들은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지만 그들의 제한된 언어 역량으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호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이를 처리하는데 비교적 미숙한 청소년기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는 이 중 분노 감정 표현에 주목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분노’는 가장 강렬한 감정이다. 불쾌함, 우울감, 슬픔 등이 아니라 ‘분노’까지 느끼게 되는 상황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극단적인 문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적 표현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도 ‘분노’는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할 경우 대인관계 문제나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정서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고기숙 · 이지숙 · 유동환 · 윤용희(2019)에 따르면 청소년의 분노는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 속에서 일어나며 분노를 억제하는 경우 공격적, 폭력적으로 변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청소년들은 분노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그 방법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 일반적인 청소년들조차 분노라는 감정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된다면,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부정적인 감정 표현에 대한 적절한 표현 방법을 더욱 배워야만 하며, 그중 가장 강한 분노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분노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 고시 2017년 한국어 교육과정>과 <2022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노 표현 교육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2) 이들 중에는 비행기 표, 방학 중 활동 등의 문제로 방학 중에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학생들도 많아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가족과의 교류 기회는 더욱 줄어든다.

## 2.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 분노 표현 교육에 대한 검토

### 2.1. 연구 필요성 및 문헌 검토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고등교육 기관 또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고등학교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는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 감정 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는 비중이 적으며 그중에서도 부정적 감정과 분노 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는 더욱 비중이 적다.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최유진(2019:1123)에서는 학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국 내 고등학교에서 유학하는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을 새로운 학습자 유형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다문화 청소년, 중도 입국 청소년과 구별되는 외국인 고등학교 유학생만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자료나 학습 방법, 관심사, 언어 사용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에 대한 교육 등 이들만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정 표현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어 교재에 부정적인 감정 표현도 포함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지영(2009:208)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 교재에는 긍정적인 감정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부정적인 감정 표현보다 긍정적 감정 표현을 가르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금현(2012:183)에서는 성인 외국인 학습자들이, 긍정적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때의 어려움보다 부정적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때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하였다. 함자영·박경(2005:79)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감정 표현, 특히 불쾌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고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였을 때, 한국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나쁘게 받아들인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부정적 감정 표현이 청소년의 발달과업으로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함자영 · 박경(2005)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 그 자체보다는 정서 표현을 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으며 감정 표현의 억제는 장기적인 생리적 각성과 신체적 불편감을 유발한다고 한다. 또한 이지수 · 최서연 · 남승규(2021)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 표현이 우울과 불안 및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면 우울감과 불안이 높아지고 행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정서에 민감한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만큼 그들을 위한 감정 교육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분노 표현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곽민주(2020:36)에서는 분노 표현에 솔직한 집단이 전반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분노 표현에 솔직한 집단은, 관계 형성 및 관계 개시 능력,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 능력, 타인에 대한 배려 능력이 가장 높았다. 즉,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타인을 무시하고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최의현(2001:70)에 따르면 분노는 어린 시절 배운 것이며 어린 시절에 경험한 타인의 직, 간접적인 분노 표현이 분노 예민성을 키울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느껴지는 분노보다 훨씬 심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는 어린 시절의 학습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청소년기에 분노 표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평생 분노 감정으로 고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 청소년들은 한국 유학 생활에서 차별받는 경험 등을 통해 분노 감정을 느낄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서툰 언어능력 등으로 인해 정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많다. 안인영 · 서지영 · 이동윤 · 이소진 · 차보석 · 이철순 · 김봉조 · 박철수 · 최재원(2016:307-310)에 따르면 한국말이 서툰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학습과 대인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학습과 대인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 우울, 불안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우울감은 학교거부와 비행 행동, 중독 행위, 자살 사고와 시도 등의 외현화 문제로 이어진다고 한다. 유지희·황숙연(2018:170)의 연구에서 한국 사회는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로 다문화 청소년들은 외모 차이나 서툰 언어능력 등의 개인적 특성과 한국인들의 자국 문화 고집이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은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과 같은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강효정(201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학생의 외모나 언어 문제, 그리고 그 학생이 속한 가족의 취약한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문제, 한국인 학생들과 교사의 다문화 인식 부재 등으로 인해 학교 폭력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한다. 이어서 고지원·노지혜·문성호(2020)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우 무의식적 차별 상황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차별을 받더라도 참거나 그냥 넘어가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대부분 스스로 넘긴다고 한다.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역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외모나 문화적 배경 등이 한국인과 다르므로 다문화 학생들과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이로 인해 분노를 느끼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우울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교육으로 가능한 것인지가 증명되어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노 표현 교육의 전제가 성립한다. 안정미·안권순(2012:285-287)에서 여러 연구 결과를 들어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 아동들의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분노 조절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심신이 조화로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안정미·안권순(2012:267, 285)에서 중학생은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의 강압적 태도와 기다리는 것에, 고등학생은 무시를 당했을 때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에 맞는 정신 건강 교육과 분노 조절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 조절과 관련한

분노 다스리기 교육이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을 촉발하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언어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을 막고 자신의 감정을 언어적인 표현으로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잘 이해받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노 표현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한국어 교육’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청소년 시기의 감정 표현에 대한 필요성은 더 크다. 외국인 청소년들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여 분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일이 많으므로 외국인 청소년들의 분노 표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은 사회적 배경이 다문화 청소년과 다르므로 일반적인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별도로 이들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2.2.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에 나타난 감정 표현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국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 먼저 ‘한국어 수업’을 듣게 된다. 이들이 ‘한국어 수업’에서 분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부 고시 2017년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을 살펴 보겠다.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는 감정 표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단계별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고급 5단계 성취기준의 쓰기 언어 기능에서 초, 중, 고등학교 성취기준으로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쓸 수 있다(교육부, 2017:15).’라고 제시되어 있는 정도가 감정 표현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부록 3의 <고등학교> 언어 재료 주제 목록[중급]에 ‘감정’, ‘고민’, ‘기분’, ‘의사소통 기능 목록[중급]’에 ‘감정 표현하기’, ‘걱정하기’, ‘불만 표현하기’, ‘심정 토로하기’, ‘후회 표현하기’가 제시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어 교육과정의 감정 표현 교육 현황

성취기준에 명시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쓸 수 있다.	고급 5단계
언어 재료 주제 목록	'감정', '고민', '기분'	중급
의사소통 기능 목록	'감정 표현하기', '걱정하기', '불만 표현하기', '심정 토로하기', '후회 표현하기'	중급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생용 한국어 교재는 『표준 한국어』인데, '학습 도구 한국어'와 '의사소통 한국어'로 분권되어 있다. 그리고 필수 차시와 선택 차시를 두었다. 그리고 각 교재는 '익힘책'이라는 워크북이 따로 있다.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이하 고등학생 학습 도구)』의 내용 구성표를 살펴보면 총 16과 중에서 4과 '꼭 배워요(필수)' 어휘로 '감정 관련 어휘', '더 배워요(선택)' 기능으로 '감정 표현하기', 13과 '더 배워요(선택)' 기능으로 '심정 표현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생 학습 도구' 교과서를 실제로 살펴보면 4과에서 '감정 관련 어휘'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선택 차시에 대한 내용이 고등학생 학습 도구 교재에는 다루지 않고 실제로는 의사소통 교재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 학습 도구 교재에서는 '감정 표현'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고등학생 학습 도구'에 제시된 감정 표현 교육 현황

교재 맨 앞 쪽의 내용 구성표			실제 단원의 내용		
	꼭 배워요	더 배워요		꼭 배워요	더 배워요
4과	감정 관련 어휘	감정 표현하기	4과	'의사소통 3'의 4과에서 감정 관련 내용 제시	
13과		심정 표현하기	13과	'의사소통 4'의 13과에서 심정 표현하기 내용 다룸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이하 의사소통)』 교재는 4권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의사소통 1, 2'는 '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의 내용 구성표와 연관이 있고 '의사소통 3, 4'는 고

등학생 학습 도구의 내용 구성표와 연관이 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여 한국어를 모르는 고등학생들은 ‘의사소통 1’부터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교재 제목이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인 것으로 추측된다. ‘의사소통 1, 2’에는 감정에 대한 교육 내용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1’에서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도의 인사 형식의 감정 표현이 있을 뿐이다.

그에 비해 ‘의사소통 3’의 4과 ‘어휘’에서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감정에 대한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휘를 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예시가 없어서 어렵다. 그리고 가장 ‘분노 표현’과 가까운 것으로 8과 선택 차시 ‘대화’에서 ‘약속 시간에 늦은 이유에 대해 변명하기’를 들 수 있는데 해당하는 대화문을 검토해 보면 ‘대회만 아니면 화가 나서 난 가 버렸을 거야.(심혜령 외, 2022L:154)’라고 제시되어 있다. 이 대화문은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난 상태를 제시하고, 화가 난 상대방에게 ‘변명하는 말하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때, ‘대회만 아니면 화가 나서 가 버렸을 거야.’라는 표현은 자신의 분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한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분노를 상대방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표현인지 등을 검토하는 활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사소통 4’에는 3과 ‘어휘(필수)’ 내용으로 제시된 ‘고민 관련 어휘’에서 ‘고민이 있을 때 마음’으로 ‘걱정스럽다, 괴롭다, 막막하다, 우울하다, 초조하다’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어휘를 제시했다면 필수 기능인 ‘조언 구하기’, ‘도움 요청하기’에서 제시한 어휘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효과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텐데 교과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3과의 선택 차시 ‘대화’에서 ‘고민에 대한 조언 구하기’ 내용이 담긴 ‘대화해 봐요 1’에서 ‘작년에도 처음에는 적응을 잘하지 못해서 힘들었어요.’라고 단 한 마디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다. 의사소통 3보다 의사소통 4에서 감정 관련 단어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의사소통 3, 4’의 감정 표현 교육 현황

의사소통 3 교재		
	내용 구성	실제 단원
4과	어휘(필수)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감정에 대한 어휘	오해하다, 당황하다, 실망하다, 속 상하다, 마음이 무겁다, 사이가 나 빠지다, 사과하다, 긴장되다, 화해 하다, 마음이 가볍다
8과	대화(선택) 약속 시간에 늦은 이유에 대해 변명 하기	〈대화해 봐요 1-6번 지문〉 대회만 아니면 화가 나서 난 가벼 렸을 거야.
의사소통 4 교재		
	내용 구성	실제 단원
3과	어휘(필수) 고민 관련 어휘	다투다, 소질이 없다, 소심하다, 걱정스럽다, 괴롭다, 막막하다, 우울하다, 초조하다
	대화(선택) 고민에 대한 조언 구하기	〈대화해 봐요 1-3번 대화문〉 작년에도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해서 힘들었어요. 〈대화해 봐요 2-5번 대화문〉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들지 않아서 밤마다 너무 괴로워.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감정 표현, 특히 분노 표현 교육의 시작을 중급, 고급 단계로 늦출 것이 아니라 초급 단계에서도 조금씩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미용 관련 일을 하고 싶은 한국어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 메이크업 관련 어휘나 표현들을 먼저 배운다. 이와 같은 논리로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해야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 적절한 갈등 관리 등 청소년기 발달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한국어 학습이 우선되어야 한다. 배희준·문미영(2021)은 대학생들이 분노를 억제할 때 대인관계를 회피하며 대학생의 감정 표현 불능은 학업 스트레스를 높이고 학업 집중도를 낮춘다고 한다.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학문 목적으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이기

때문에 감정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최종 목적인 학문적인 성취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즉, 한국어 능력이 초급 단계일 때,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접할 것이고 그로 인해 차별을 받거나 화가 나는 일이 많을 수 있다. 그런데 단지 한국어 초급 단계라고 분노 표현 교육을 뒤로 미뤄 버린다면 이들은 한국의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둘째, 교재에서 감정 관련 어휘를 주제로 정해서 제시한 것은 좋으나 그 어휘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제시하지 않고 있고 다른 문법 표현 학습의 도구, 예시문으로 단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감정은 단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화가 났을 때 분노 표현을 어떻게 해야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교재에 보강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분노 표현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교재를 통해 좀더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분노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던 교사도 교재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 역시 분노 표현 관련 어휘와 문법을 어떤 식으로 접목시켜서 자신의 분노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지 좀 더 많은 정보를 교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3. 연구 방법 및 결과

#### 3.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고등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분노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응답 속에서 분노 표현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 소재의 K고등학교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1, 2, 3학년 총 23명<sup>3)</sup>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의 K고등학교 외국인 입시 전형에 응시, 합격하여 입학했다. 대부분 혼자 한국에 와서 유학 생활 중이다. 그중 1명은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중도입국하여 국제학교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 K고등학교의 입시 전형에 합격한 후 재학 중이며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다. 이들은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설문 문항에는 먼저 학년, 한국어 실력 등 기초 정보를 묻는다. 다음으로 한국 생활과 한국 학교 생활에 얼마만큼 만족하는지를 물어서 학생들의 분노가 학교 안과 밖의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알고자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화가 나는지 물어서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지 알고자 하였다. 화가 날 때 표현을 잘하는 편인지 물어봐서 얼마나 분노 표현을 참고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그리고 화가 날 때 했던 표현과 결과, 그리고 표현을 안 했을 때의 이유와 결과를 물어서 학생들의 분노 표현 경험과 그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분노 표현이 한국 생활이나 한국에서의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제안할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물어서 한국어 분노 표현 교육에 대해 학생들의 기대 수준은 어떠한지 어떤 내용을 힘들게 생각하고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한국어 실력을 고려하여 영문으로 문항을 병기하였다. 국어교육학 박사 3명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 최종 설문 문항은 <표 4>와 같다.

3) 설문 응답자의 수가 통계를 위한 양적 연구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인원은 연구자들이 연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치의 표집을 한 것이다. 법무부의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현황(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091\\_111\\_2009\\_S018&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091_111_2009_S018&conn_path=I2), 검색일자: 2024.3.10.)에 따르면 2021년에 초중고 유학생 비자(D4-03)를 취득한 수가 남자 10명, 여자 49명으로 총 59명이므로 이 중에서 23명이 연구 대상이라면 이들의 실태를 보여주기에 표집이 지나치게 적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본 연구는 양적인 통계를 보여주기보다 유학생들의 서술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4〉 설문 문항

1	몇학년입니까? (What class are you in?)
2	한국어 실력이 어떻습니까? (How is your Korean level?)
3	한국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 in Korea?)
4	한국 학교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school life in Korea?)
5	언제 화가 납니까?(When do you get angry?)
6	화가 날 때는 감정을 표현하니까? (Do you express your emotion when you are angry?)
7	화가 날 때는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니까?(When you are angry, how do you express your emotion?)
8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을 때 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When you don't express your anger, why don't you express your emotion?)
9	분노를 표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What happened when you expressed your anger?)
10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What happened when you didn't express your anger?)
11	한국어 분노 표현을 배우면 한국 생활이나 한국에서의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Do you think that learning how to express anger in Korean will help your life in Korea or your relationship with Koreans?)
12	분노 표현 수업에 대한 정보를 써 주십시오. (Please write some information for anger expression class!)

이상의 문항들 중 3, 4, 6, 7번은 5점척도의 선택형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5, 8, 9, 10, 11, 12번은 자유기술을 하게 한 다음 해당 문항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의미 요소들을 추출하여 분류하였다.

### 3.2. 연구 결과

〈표 4〉의 문항들로 부산 소재 K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교사의 참관하에 종이로 된 설문지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유학생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분노 경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응답하였다. 그러나 교사와의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수시로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므로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바꾸어 익명성을 보장하고 솔직히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 조사를 다시 시행하였다. 설문 목적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개인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며 개인 연구를 위함임을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2023년 6월 13일에 설문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배부해서 각자 편한 장소에서 작성하게 하였다. 2023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4일간 구글 폼을 사용한 설문 조사에 응답한 학생은 총 22명이었다.

〈표 5〉 설문 참여자 기본 정보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무응답(비밀)	합계
응답 (명)	7명(31.8%)	5명(22.7%)	4명(18.2%)	6(27.3%)	22 (100%)
학년	1급 미만	1급	2급	3급 이상	합계
응답 (명)	11(50.0%)	8(36.4%)	3(13.6%)	0(0.0%)	22 (100%)

설문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표 5〉와 같다. 설문 조사에 응한 학생들은 모두 초급 한국어 학습자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보았다. 어떠한 것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의사나 욕구에 반할 때 분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를 통해 분노 현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함이다.

〈표 6〉 한국 생활과 한국 학교 생활 만족도 비교

질문	한국 생활 만족도					합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명)	0(0.0%)	1(4.5%)	6(27.2%)	7(31.8%)	8(36.3%)	22 (100%)
질문	한국 학교 생활 만족도					합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응답 (명)	0(0.0%)	4(18.1%)	10(45.4%)	6(27.2%)	2(9.1%)	22 (100%)

〈표 6〉에 따르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교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입시를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숙제, 수행평가, 시험 등 여러 가지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절대적인 학습량이 많아서 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학교 시스템 자체가 다수인 한국인 학생과 구성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 생활에 좀더 피로함을 느낄 수 있다. 학교 밖을 벗어나면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표 6〉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부조리한 학교 시스템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섞어서 호소력 있게 개선을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한국어 분노 표현 교육을 계획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느낀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한국어로 표현하고 공감을 얻는다면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학교 생활 적응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표 7〉 분노 감정 표현과 수업에 대한 기대 분석

질문	분노를 느낄 때 감정을 표현합니까?					합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명)	4(18.1%)	10(45.5%)	6(27.3%)	1(4.5%)	0(0.0%)	22 (100%)

질문	한국어 분노 표현을 배우면 한국 생활과 한국인과의 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합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명)	5(22.7%)	3(13.6%)	7(31.8%)	2(9.1%)	5(22.7%)	22 (100%)

〈표 7〉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분노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있고 분노 표현 학습과 대인관계 도움에 대한 기대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8〉 분노 표현 수업에 대한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상대방 이해(5)		
배움 의지 있음 14(63.6%)	분노 표현(11)	문제 해결(10)	올바른 표현 방법(7)
			나의 감정 관리법(3)
		욕하는 법(1)	
배움 의지 없음 8(36.4%)	모름(2)		
	필요 없음(6)		

〈표 8〉에 따르면 분노 표현 수업을 한다면 배움 의지가 있는 학생이 많았다. 〈표 8〉의 배움 의지에 비해 〈표 7〉의 대인관계 기대 수준이 낮은 것을 보면 고등학교 외국인 학생들은 분노 표현과 대인관계 사이의 연관성을 모르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분노 표현 학습과 대인관계에 배움의 의지가 없는 그룹의 경우 분노 표현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분노 표현을 포기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둘러싼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잃은 학생들에게 분노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교육시키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욕하는 법이 알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이미 한국어 욕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욕을 하는 것은 언어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 중 가장 원

초적이고 손쉬운 방법 중 하나다. 따라서 한국어 수업 시간에 이들에게 분노 표현을 격식에 맞춰서 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들은 단순히 욕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노 표현 수업에 대한 생각은 자유 서술형 응답 형식의 설문이었으므로 분노 표현 수업의 의지가 있는 그룹은 14명이지만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총 응답수는 34건이었다.

〈표 9〉 화가 나는 이유

내면의 이유(10)	계획대로 안 될 때(4) 자기 정체성(4) 신체적 이유(2)
외부의 이유(24)	억울함(5) 이용 당함(5) 무례나 무시(5) 학교 친구들(3) 차별(2) 성적(1) 거짓말(1) 시간 없음(1) 공적 분노(1)

〈표 9〉에서 화가 나는 이유는 내면의 이유와 외부의 이유로 정리할 수 있었다. 〈표 8〉에서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의 응답을 봤을 때 분노 표현 교육은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해결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 감정에 대해 스스로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도 필요하다.

〈표 10〉 화가 났을 때 표현 방법

표현함 (15)	상대를 향해(8)	직접적(4)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함(2)
			당사자와 대화(2)
		간접적(4)	당사자를 피함(2)
			소극적 공격 행동(1) 웃음(1)
	제삼자를 향해(7)		친구들과 대화(4) 가족과 대화(3)
	표현 안 함(16)		자신에게 불평하거나 말함(4) 침묵함(4) 혼자 소리 지름(2) 아무것도 안 함(2)

	랩을 들음(1)
	폭식(1)
	잠(1)
	혼자 넘김(1)

〈표 10〉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어로는 그런 해결을 할 능력이 없다.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한국 사회에서 영어나 자국어로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을 만날 기회는 매우 적다고 보아야 한다. 번역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문화에 맞는 분노 표현법을 알아야 한국 정서에 맞게 분노를 표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분노 표현을 하지 않은 이유

내부 요인 (5)	자신의 성격과 게으름(3)	
	분노에 대한 나의 인식(2)	
외부 요인 (23)	상황에 대한 판단(12)	화 낼 수 없는 상황(2)
		상황 개선 안 됨(10)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11)	대인관계 악화(6)
		상황 악화(5)

〈표 11〉에 따르면 학생들이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 해결에 대해 기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이해해 줄 사람이 없으며 분노 표현은 소용이 없고 시간, 에너지 낭비일 뿐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분노 표현이 불러올 부정적인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기숙·이지숙·유동환·윤용희(2019)의 논의에서 청소년 분노 원인 중 하나가 어른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분노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은 분노 표현을 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됨과 동시에 고등학교 외국인 학생이 분노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표 12〉 분노 표현으로 인한 결과

표현함(19)	부정적 결과 (10)	개인(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쁜 선택을 함</li> <li>• 일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li> <li>• 복통</li> </ul>
		관계(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인관계가 나빠짐(3)</li> <li>• 사람들이 나에게 화가 남</li> <li>• 사람들과 싸움</li> </ul>
		문제 상황(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를 무시하게 됨</li> <li>• 문제가 악화됨</li> </ul>
	긍정적 결과 (5)	개인(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이 풀림(2)</li> </ul>
		관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줌</li> </ul>
		문제 상황(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결책을 찾음</li> <li>• 문제가 해결됨</li> </ul>
	별일 없음(4)	nothing(4)	
표현 안 함(2)	분노 표현을 절대 하지 않음(2)		

〈표 12〉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분노 표현을 통해 대인관계가 악화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sup>4)</sup> 〈표 11〉에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경험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표 13〉 분노를 표현하지 않은 결과

긍정적 결과(4)	해결책 배움(4)
부정적 결과(18)	부정적 감정 생김(12)
	부정적 감정의 심화(3)
	일상생활 지장(2)
	자기 존중 없음(1)
아무 일 없음(3)	별일 없음(2) 잊어버림(1)

〈표 13〉에서 분노 표현의 긍정적인 결과로 해결책을 배웠다는 응답 4건 중 3건은 ‘그냥 넘어가는 법을 배웠다’라는 응답이라 긍정적 결과

4) 이 문항에서 동문서답을 한 학생 1명의 답변(“Fighting”)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라 보기는 힘들다. <표 12>와 <표 13>을 보면, 분노 표현을 하든, 분노 표현을 하지 않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지만 <표 12>의 5명에서 보듯이 분노를 표현했을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역시 분노는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분노 표현을 교육할 필요성이 도출된다.

분노를 표현하지 않은 이유 역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분노 표현이 불러올 부정적인 결과를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분노 표현에 관한 긍정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최의현(2001)을 보면 어린 시절의 분노 경험이 전 생애의 분노 표현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 시기의 분노 경험은 아주 중요한데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경험을 살펴봤을 때 이들의 미래에 생길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은 분노를 표현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으며 분노를 표현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경험했고, 분노를 표현하지 않거나 또는 표현하지 못했을 때 역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했다. 이를 통해 분노 표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분노 표현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이처럼 분노 감정을 표현하는 학습 내용이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필요하므로,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 이를 배우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중, 고급 단계까지 미룰 까닭이 없다.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분노 표현을 교육하기 어렵다면 교사는 유학생의 출신 언어에 맞는 번역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초급 단계에서부터 언어에 대한 지식, 가치, 태도는 가르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은 단지 그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 4.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분노 표현 교육의 방안

### 4.1. 분노 표현 교육의 내용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국가 수준 국어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분노 표현 교육을 위한 내용과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표 6〉을 통해 고등학교 유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분노 표현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 8〉을 보면 분노 표현을 포기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둘러싼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잃은 학생들에게 분노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교육시키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표 9〉를 보면 분노 표현 교육은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해결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 감정에 대해 스스로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에게 분노 표현을 가르칠 때 어휘 제시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분노 표현의 상황과 맥락을 제시할 때 이들의 생활과 처지를 고려하여 제시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 학교 생활, 성적에서 오는 분노 등을 다룰 수 있고 학교 생활 안에서도 분노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어떠한 말투로 어떠한 어휘와 표현을 선택하여 표현해야 하는지 교육할 수 있다.

셋째, 〈표 10〉을 보면 한국 문화에 맞는 분노 표현법을 알아야 한국 정서에 맞게 분노를 표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을 보면 학생들이 분노 표현으로 대인 관계가 악화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했고 이 경험이 분노 표현을 하지 않은 이유로도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인관계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분노 표현을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분노 표현은 단순히 화를 내고 폭력적인 언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문제와 심리를 상대방과 상황에 맞게 언어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역할극 등을 통해 성공적인 경험을 쌓게 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표 11>를 보면 자신이 분노 표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상황에 있다고 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상황별 문제 해결 전략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언어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표 13>을 보면 분노 표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해 줄 수 있는 수업 활동을 구안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자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위의 내용들을 정서 발달의 단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정서 발달을 돕고 감정을 표현하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분노 표현 교육 내용의 체계성이 확보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고등학생이므로, 교육부(2022)의 국어과 교육과정 <공통국어> 1, 2의 ‘내용 체계’를 참고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공통국어> 1, 2의 내용 체계는 <표 14>와 같다.

<표 14> 2022 개정 교육과정 <공통국어> 과목 내용 체계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교육부(2022)에 따르면 ‘핵심 아이디어’는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내용 요소’는 교과(목)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으로 ‘지식·이해’는 ‘교과(목) 및 학년(군) 별로 해당 영역에서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 ‘과정·기능’은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 과정 또는 기능’, ‘가치·태도’는 ‘교과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유한 가치와 태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도 분노 표현의 교육 방안을 3가지 범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내용 요소를 제시하려 한다. 첫째, ‘지식·이해’ 범주의 내용 요소 중에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은 분노 표현을 할 때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분노 표현은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하고 한국 사회와 문화적 맥락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우므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원활한 대인관계를 맺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와 협상 상황을 제시하는 맥락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고 분노를 유발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나 ‘협상’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고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본 후에 시작할 수 있는데 정제되지 않은 분노는 자신과 상대방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은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혹은 자신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대화’나 ‘협상’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확인한 후, 분노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이때, 언어적 및 비언어 표현 등을 한국어로 한국 문화에 알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자기 내면의 분노를 마주하고 그 분노에 대해 성찰하고 써 보면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고 분노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성찰해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쓸 수 있다. 작문 전 활동으로 분노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다른 사람과 나눠 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데 앞서 논의한 것처럼 자신의 외부 상황으로 인한 분노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분노도 있다고 제시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분노를 표현하는 적절한 어투나 어휘에 대해 성찰해 볼 수도 있다.

둘째, ‘과정·기능’ 범주의 내용 요소 중에서 분노 표현을 위해서 ‘언어 공동체의 특성 고려하기’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어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자신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그에 맞는 완곡한 분노 표현법, 어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대로 못 한다면 한국인과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

다. 한국어 공동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분노 표현은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대화로 분노를 표현할 때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여 상호 작용하기’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분노를 협상을 통해 표현하면서 갈등을 조절할 때는 ‘쟁점과 이해관계 파악하기’, ‘대안 탐색을 통해 문제 해결하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내면의 분노를 성찰하고 쓴 글을 읽고 감정적으로 잘 공감해주고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쓴 글을 함께 읽고 반응하기’도 필요하다.

셋째, 가치·태도 범주의 내용 요소를 골라 보면 ‘담화 관습에 대한 성찰’, ‘다양한 언어 공동체에 참여’, ‘공동체 규범에 대한 인식과 글의 영향력에 대한 성찰’, ‘사회적 참여와 책임’을 들 수 있다. 분노를 표현할 때 담화 관습을 잘 지켰는지 성찰이 필요하고, 다양한 언어 공동체에 참여해서 자기 분노를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분노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공동체 규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글의 영향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를 바탕으로 분노를 표현할 때의 말투, 분노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욕설, 비방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크게 분노는 어떤 감정인지 인지하는 ‘분노 감정 인식’, 분노 표현에 사용할 수 있는 어휘나 표현을 다루는 ‘분노 관련 어휘, 표현’, 자신의 분노 감정을 직면하고 성찰해 보면서 그 내용을 표현해 보는 ‘내면적 성찰과 분노 표현’, 단순히 분노를 성찰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분노 발생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분노 표현’, 분노 감정을 참지 말고 용기 있게 자신의 분노 감정을 직시하고 표현해서 언어 공동체에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의 가치와 태도를 배우는 ‘분노 표현의 가치와 태도’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분노 표현 교육 내용

범주		내용 요소
지식 · 이해	분노 감정 인식	· 분노 감정의 특성 이해
	분노 관련 어휘, 표현	· 분노 감정과 관련된 어휘, 숙어 학습 · 분노 감정과 관련된 은유적 표현 학습
과정 · 기능	내면적 성찰과 분노 표현	· 분노에 대해 쓴 글을 함께 읽거나 쓰고 반응하기 ·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쓰기 위한 자신의 분노 표현 성찰 · 분노를 다스리는 법, 자신의 분노 경험 등 분노와 관련된 일기, 에세이 쓰기 · 문학 작품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분노 감정을 담은 감상문 쓰기
	문제 해결을 위한 분노 표현	· 분노 표현 어휘, 말투 선택을 위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 대화를 통한 분노와 공감, 사과, 화해 표현 ·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노 상황과 갈등 조절 · 분노 표현 어휘, 어투 선택을 위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 고려하기 · 분노 상황과 갈등 해결을 위한 쟁점과 이해관계 파악하기 · 대안 탐색을 통해 분노 문제 해결하기 · 분노 상황 해결을 위한 항의문, 건의문 쓰기 · 분노를 표현하거나 공감하는 편지 쓰기
가치 · 태도	분노 표현의 가치와 태도	· 담화 관습에 대한 성찰을 통한 올바른 분노 표현 어휘, 어투 선택 · 분노 표현과 분노 상황 해결을 위해 다양한 언어 공동체에 참여 · 바른 분노 표현을 위한 공동체 규범에 대한 인식과 글의 영향력에 대한 성찰 · 자신을 둘러싼 분노 상황 해결을 위한 사회적 참여와 책임

## 4.2. 분노 표현 교육의 실제

〈표 15〉에서 선정한 분노 표현 교육 내용을 실제로 수업할 때 어떤 내용을 강조할 수 있을지, 어떤 수업 방법들이 가능할지 예를 들어 보겠다.

### 4.2.1. 분노 감정 인식

분노 표현을 하려면 분노 감정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인식해야 할 분노 감정의 개념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분노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인류 보편적인 감정이고 분노 자체는 중립적인 감정이므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분노를 억압하면 궤양, 두통, 소화불량, 설사, 신경과민, 고혈압 등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윤종석 역, 2011) 분노를 잘못 표현하면 심장마비, 사고 유발, 인간관계 악화, 혹은 기타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김효원 역, 2018:19-20). 따라서 분노는 표현해야 하는 감정이고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분노 감정의 개념과 특성을 유학생들이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 자신이 생각하는 분노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분노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서 분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언제 화가 많이 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나눠 볼 수 있다. 자신이 화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이야기하고 그 방식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자신의 분노 표현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4.2.2. 분노 관련 어휘와 표현

기본적으로 분노에 관련된 어휘나 표현을 알지 못하면 언어로 분노를 표현할 수가 없다. 김태용·안도현(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감정 관련 어휘가 다양한 감정 표현이 가능하고 언어로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때문에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감정

어휘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언어 전달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분노 감정과 관련된 어휘, 속어, 표현을 고르고 유학생들에게 그것들을 이해, 연습할 수 있는 여러 맥락을 세심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단순히 유학생들의 자국어로 분노 관련 어휘들을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뉘앙스를 살릴 수 있는 여러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한 어휘, 속어, 은유적 표현을 사용한 예문이나 짧은 글을 많이 써 보게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 학생의 분노 표현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나라에는 분노와 관련된 어떤 은유적 표현이 있는지 설명하면서 한국어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분노 관련 표현을 간단한 상황극으로 설명하고 답하는 게임을 통해서도 분노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

#### 4.2.3. 내면적 성찰과 분노 표현

분노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매개가 될 수 있다. 언어로 자신의 분노 감정을 성찰해 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자기 분노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에 도움이 되며 자신의 분노 표현을 다듬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가형·백용매(2014:281-282)에서는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면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신체화 증상이 높아지며, 자기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해도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신체화 증상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분노’가 주제인 글을 읽고 분노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에 대한 글을 읽고 자신의 의견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언제 화가 나는지 친구들과 공유하는 대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공유하고 서로 공감하는 대화를 배울 수 있다. 그 후에 자신이 생각하는 분노가 무엇인지에 대해 써 보거나 자신의 언어와 한국어의 분노 표현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써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생활과 학교 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그에 따른 분노 감정에

대해 에세이를 쓰고 타임 캡슐 형태로 묻었다가 졸업하기 전에 꺼내 그 상황과 그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하고 써 보는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노는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그라드는 경향이 있는데 분노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 분노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꼭 본인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분노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영화나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감상 후 느낀 분노 감정을 섞어서 감상문을 쓸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신의 문제가 아니므로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분노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학생들에게 일기 쓰기 활동을 제시할 수도 있다. 분노에 대한 내면적 성찰이 목적이므로, 분노 감정에 관한 일기를 자국어로 쓰는 것 또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분노하게 했던 상대와 대면했을 때에 과거의 분노에 대하여 적극적인 항의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거나, 또 새로운 상대가 자신을 화나게 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 표현을 하려면 역시 한국어가 필요하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적절한 한국어 분노 표현을 찾아가며 일기를 쓰는 것은 내면적 성찰과 동시에 분노 표현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연습 과정이기도 하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에서 자신의 분노로 여유가 없을 때에 한국어까지 활용해야 한다면 인지적 부담이 너무 커서 배운 내용도 생각이 잘 안 날 것이다. 한국어로 일기나 에세이를 쓰면서 차분히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글쓰기 연습을 한다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한국어로 자신의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여 문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교사나 동료 피드백이 중요하다. 조동우·연효진·김준호·양예원·류덕산·유철중(2023)에 따르면 최근 자기 객관화가 중시되고 있고 그에 따라 블로그나 일기 앱을 통한 일기 쓰기 역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사용자 작성 일기에 대한 감정 분석 결과 제공 등 추가적인 분석이나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나 동료가 학생의 일기나 에세이 등 작문 결과물에 대해 추가 정보와 그에 맞게 피드백을 준다면 그 학생의 자기 감정 이해, 자기 인식, 내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학생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것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4.2.4. 문제 해결을 위한 분노 표현

자신의 분노를 성찰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른 이에게 자신의 분노에 대해 표현하고 분노를 유발한 상황이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이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공감할 때 주로 쓰이는 방식은 ‘대화’이다.

이때 어떻게 하면 적절한 분노 표현을 사용해서 유학생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학습해야 한다. 어떤 어휘나 표현이 어떤 상황까지 용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무례한 일이 되는지 각각의 분노 상황에서 어떤 어투를 사용하면 자신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실제로 연습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초급 수준에서 구사 가능한 간단한 몇 마디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도 분노 표현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번역기 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분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예의나 주의 사항을 알려 주면 번역기를 사용할 때 문장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자신의 언어로 작문하면 번역기에서 한국식으로 분노 표현을 잘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문장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초급 단계에서는 첫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간단한 문장과 표현 교육, 연습이 필요하다. 둘째, 번역기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교육하고, 한국식 예의를 지킨 문장을 자국어로 작문하여 번역기를 사용해서 한국식 예의를 지킨 한국어를 얻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공감’하는 능력이다. 김나현·김희화(2019)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발달 과업 중 하나는 적절하게 부정적 감정을 조절,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고 청소년의 경우 부모보다 친구의 영향력이 크며, 청소년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친구의 반응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증감한다고 한다. 즉, 친

구의 정서적 지지와 공감, 문제 해결을 도와주려는 반응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행간을 읽어 내고 그 속에서 찾아낸 감정에 대한 적절한 응대를 가르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원민·온병원(2021)에 따르면 챗봇이 사람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다면 챗봇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응답 문장을 생성할 때 화자의 감정을 고려해야 하고 감정이 반영된 대용량의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배울 때 문장 그 자체로만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그 감정을 읽어내야만 자연스러운 응대와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재 속에 자연스러운 대화문,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인 교사의 설명, 교사와의 토의 등을 통해 어린이가 언어를 배우는 방식과 같이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역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역으로 챗봇을 사용해서 분노 표현을 연습해 보고 챗봇의 응대를 분석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서 한국어 분노 표현을 연습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분노 감정과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의 분노에 공감해주는 것으로 분노 상황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에 그 상황이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비폭력대화’를 적용해볼 수 있다. 김영미(2022)에 따르면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비폭력대화’의 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느낌을 직면하여 자신이 욕구를 찾아내어 용기를 내어 진심 어린 부탁을 하는 과정을 연습해야 한다고 한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자신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노 역시 여러 상황에서 자신이 받은 상처에서 기인한 감정이고 상처일 것인데 이를 ‘비폭력대화’를 통해서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다. ‘비폭력대화’의 과정을 통해 대인관계에서 받은 분노에 직면하고 스스로 객관화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고 원하는 것을 용기 내어 말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의 학교 생활 적응과 성공

적인 유학 생활을 위해서는 선생님, 한국인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거나 사과나 화해하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서 분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과 용기를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때로는 분노 유발 상황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분노 유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으면 그 상황은 종결된 것이 아니다. 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건의’나 ‘항의’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건의나 항의는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건의문이나 항의문을 써서 시도해 볼 수 있다. 아니면 자신의 상황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5)</sup> 고등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분노 표현 교육은 화를 잘 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고, 자신이 느낀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므로, 한국어로 건의하기, 항의하기, 협상하기 등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 4.2.5. 분노 표현의 가치와 태도

마지막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의 가치와, 분노를 표현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르칠 수 있다. 자기가 느낀 분노의 감정을 타당한 이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문제를 발견, 해결해 나가는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약속에 항상 늦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친구가 늦을 때 분노를 느끼는 대신 그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마침 할 일이 있었는데 친구가 나에게 그 일을 할 시간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분노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을 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친구는 평생 자기 잘못을 고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상습적인 지각 습관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자기

5) ‘대화’, ‘협상’, ‘건의’, ‘항의’ 등은 ‘국어 교육’의 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루어지는 ‘화법 영역’의 하위 장르이지만 ‘한국어 교육’의 과정에서 ‘대화’를 제외하고는 깊이 다루지 않는다.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기 위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있으나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길러야 할 역량들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지 못하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포기하게 만들며 이 상황이 계속되면 자기 자신도 지치고 결국은 이 친구와의 인간 관계를 포기할지도 모른다. 적절한 분노 표현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과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분노 표현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분노 표현이 초래할 두려움을 극복하고 타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노력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 분노 표현에 대한 가치와 태도의 교육을 통해, 분노 표현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서, 언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태도로 언어 공동체에 참여해야 하는지 알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외국인 유학생들도 바람직한 언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기의 분노 표현 경험과 그 결과, 그리고 다음에 같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 등을 주제로 한 에세이 쓰거나 발표하기 등의 활동을 해볼 수 있다.

물론, 고등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이 괴로워할 때, 개별 학생들의 모국어로 상담해 주거나 모국어가 통하는 이중 언어 교사가 학생의 문제를 듣고, 그 해결을 도와주는 방식이 학생의 정서 발달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분노 감정을 표현해 볼 기회, 그 가치를 체득하고 자신의 분노 감정을 잘 표현해서 언어 공동체에 참여하려는 태도를 체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등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분노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여 갈등을 겪는 일도 막아야 하고, 부당한 일로 분노를 느꼈음에도 표현할 길이 없어 정서적으로 힘들어지는 일도 막아야 한다. ‘분노’는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가치를 인식하고,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에서부터 분노 교육은 시작되는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와 설문 조사를 통해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분노 표현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어떤 교육 내용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이 좋아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헤어져 한국에서 유학하는 것을 선택한 이들이다. 한국에 대한 기대가 많고 감수성이 높고 감정적으로 예민하며 아직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았고 아직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의 분노 표현 교육은 그 학생 전 생애의 분노 표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공적인 분노 표현 경험이 적어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분노 표현에 대한 지식과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그를 통한 성공적인 문제 해결 경험을 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모국어 수업에서 배워야 할 언어 공동체에 대한 이해, 언어 사용 태도,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의 내용을 선정하여 한국어 수업에서 보강해야 한다.

둘째,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분노 표현 교육은 중요한데 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서는 감정 표현 교육이나 그에 관련된 내용, 태도 관련 교육 등을 특히 초급 과정에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보완하거나 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분노 표현 수업 내용을 개발할 때는 분노 표현 상황과 맥락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 상황과 맥락을 제시할 때 타인과의 갈등 상황만을 분노 표현 상황과 맥락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분노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분노 표현 상황과 맥락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직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입학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학교 상황 파악이 힘들고 이들을 위한 학교 제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생각도 통일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분노 표현 교육의 특성상 그것만을 위한 새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과목, 한국어 교육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각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과 과목 편제를 바탕으로 분노 표현을 어떤 식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 활용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분노 표현만 따로 수업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수업 중간 중간에 분노 표현에 대한 정보를 자주 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유’ 표현을 공부할 때 화가 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예문이나 대화문을 넣을 수 있고 간단한 쓰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는 어휘나 문법, 읽기 자료를 파악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앞서 논의한 교육 방안을 수업 중간중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설문 조사 분석을 할 때 분노나 분노 표현과 관계되는 여러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분노 표현 교육의 시행과 그 결과에 대한 검증이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강효정(201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와 대응방안, <다문화와 인간> 5(2), 121-144쪽.
- 고기숙 · 이지숙 · 유동환 · 윤용희(2019). 청소년의 분노 표현 및 대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 445-462쪽.
- 고지원 · 노지혜 · 문성호(2020).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문화역량의 조절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2,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5-28쪽.
- 교육부(2017). 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별책43] 한국어 교육과정.
- 교육부(2022).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 곽민주(2020). 성인초기의 분노표현양식과 대인관계 유능성: 정서강도, 정서주의,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표현양가성의 군집비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가형 · 백용매(2014). 청소년의 감정표현불능증, 정서인식 명확성이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 267-290쪽.
- 김나현 · 김희화(2019). 초기 청소년의 분노 · 슬픔과잉표출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친구의 분노 · 슬픔 지원반응의 증재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7(2), 187-200쪽.
- 김동진 · 서은숙(2021). 차별 경험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차별하는 주체의 구분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60(2), 169-183쪽.
- 김영미(2022). 마음 치유 수업을 통한 회복 탄력성 키우기 : 비폭력 대화로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치유 수업, <우리교육> 287, 125-127쪽.
- 김태용 · 안도현(2011).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들의 극성-각성 좌표화를 통한 해독격차 분석 및 수업과 프로세스 제안, <한국언론학보> 55(6), 436-465쪽.
- 김효원 역(2018). 더미를 위한 분노 조절 제2판. 시그마북스, Charles H. Elliott and Laura L. Smith(2015), *Anger Management For Dummies*, 2nd Edition, John & Sons, Inc.
- 문금현(2012).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에 대한 말하기 교육, <시학과 언어학> 22, 시학과언어학회, 175-200쪽.
- 배희준 · 문미영(2021). 간호대학생의 감정표현불능과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집중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건강학회지> 11(2), 55-64쪽.
- 손선주 · 박미숙 · 박지은 · 손진훈(2012). 한국어 감정 표현단어의 추출과 범주화, <감성과학> 15(1), 105-120쪽.
- 신현숙 외(2000).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 사전, 한국문화사.
- 심혜령 외(2021ㄱ).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 마리북스.
- 심혜령 외(2021ㄴ).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4, 마리북스.
- 심혜령 외(2023).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1, 마리북스.
- 심혜령 외(2022ㄱ).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2, 마리북스.
- 심혜령 외(2022ㄴ).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3, 마리북스.
- 안인영 · 서지영 · 이동윤 · 이소진 · 차보석 · 이철순 · 김봉조 · 박철수 · 최재원(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한국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 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7(4), 306-312쪽.
- 안정미 · 안권순(2012). 청소년의 분노정서경험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3), 267-292쪽.
- 유지희 · 황숙연(2018).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대화 시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4), 169-193쪽.
- 윤종석 역(2011). 분노 컨트롤, 도서출판 디모데, Chip Ingram and Becca

- Johnson(2009), *Overcoming Emotions That Destroy*, Baker Publishing Group.
- 이원민·온병원(2021). 감성 및 감정 단어 마스킹 기반 BERT와 GPT 파이프라인 방식을 통한 감정 문장 생성,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19(9), 29-40쪽.
- 이지수·최서연·남승규(2021). 관계경험과 감정표현이 우울과 불안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인간연구〉 45,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71-103쪽.
- 이지영(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 표현 연구, 〈한국어 의미학〉 29, 201-227쪽.
- 임지룡(2006). 말하는 몸-감정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조동우·연효진·김준호·양예원·류덕산·유철중(2023). 다중 감정 분류 기반 감정 문장 생성을 이용한 챗봇 일기 서비스, 〈한국정보기술학회〉, 743-747쪽.
- 최유진(2019).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현황 및 과제, 〈인문사회 21〉 10(4), 1119-1134쪽.
- 최의현(2001). 건강/정신과 분노, 〈자동차공학회지〉 23(6), 69-70쪽.
- 함자영·박경(2005).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감정표현불능증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소〉 18, 77-90쪽.

## 필자 소개

성 명 노초롱  
소 속 부산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수료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백호로 156  
전자우편 sweetydreami@naver.com

성 명 김중수  
소 속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조교수  
주 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제2사범관 309호  
전자우편 so@pusan.ac.kr

## Abstract

# Korean Anger Expression Education for Foreign Students in Korea

Noh, cho-rong · Kim, jung-su  
(Pusan National University)

Foreign students in high school feel anger, but they cannot express their anger properly. In this study, a rough direction of anger expression education was suggested. Foreign high school students had difficulty expressing their anger, had not received proper anger expression education, and had a weak will to solve their problems through anger expression. Therefore, after teaching them vocabulary and expression related to anger expression, they should be educated to face and reflect on anger emotions, and then to express their anger to others and to empathize with others' anger emotions. After that, they should be educated to solve their anger-inducing situations and problems in language, and attitude education is also necessar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 new research subject that was not well dealt with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discovered. Second, the perspective was changed from education centered on the ability to use Korean to express emotions in Korean.

**[Key words]** Foreign student in high school, Korean education, Emotional expression, Anger expression education, Problem solving skills

투고일 2024. 02. 13 / 심사일 2024. 03. 09 / 게재확정일 2024. 03. 13